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 경찰청		배포일시	2020. 8. 12(수) 총 6매(본문6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영중, 사무관 이정식 • ☎ (044) 201-3862, 3863	
	경찰청 교통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창훈, 경정 김주곤 • ☎ (02) 3150-2052, 2152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12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'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, '17년 동기 대비 23.3% 전년 동기대비 10.0% 감소

- 전년 동기 대비 보행자(15.8%↓), 고령자(18.3%↓), 어린이(25.0%↓) 등 크게 감소
- 강원(45.2%↓), 인천(41.2%↓) 등 감소, 광주(50.0%↑), 대전(9.1%↑) 등은 증가
- 관계부처 합동 「어린이 교통안전대책」, 「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」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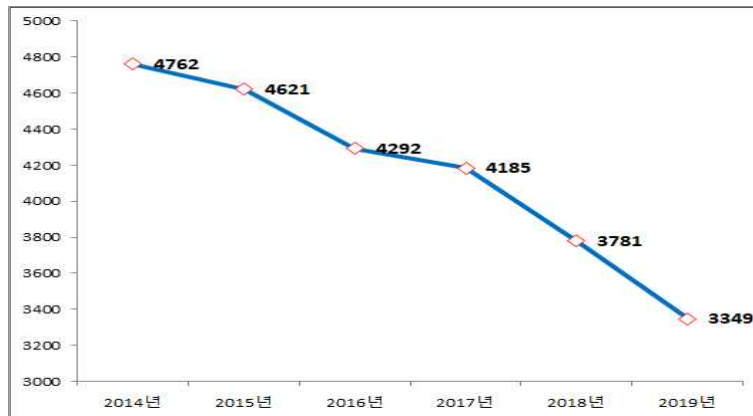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('19.1~6월, 1,621명)에 비해 10.0% 감소한 1,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.

- 특히,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(△15.8%), 고령자(△18.3%), 어린이(△25.0%), 사업용차량(△12.5%)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다만, 이륜차(13.7%)와 고속도로(11.2%)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구 분	보행자	고령자 (65세 이상)	어린이 (13세 미만)	사업용차량	음주운전	이륜차	고속도로
'20년 1~6월	515	603	12	267	149	265	99
'19년 1~6월	612	738	16	305	152	233	89
대비(%)	-97(-15.8)	-135(-18.3)	-4(-25.0)	-38(-12.5)	-3(-2.0)	32(13.7)	10(11.2)

-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'17년 4,185명에서 '19년 3,349명으로 20% 수준 감소하는 등 지난 2년간, 높은 감소세 보여 왔으며, 이러한 감축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 상반기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23.3% 감소('17년 1,902명 → '20년 1,459명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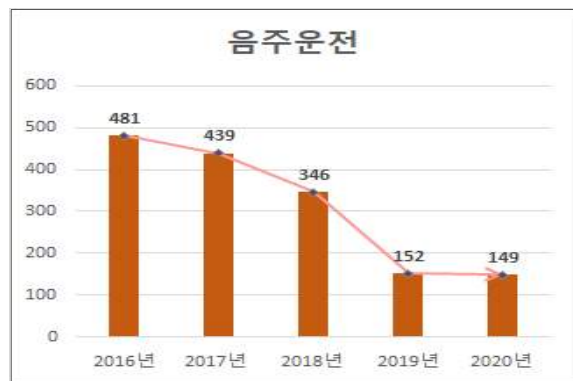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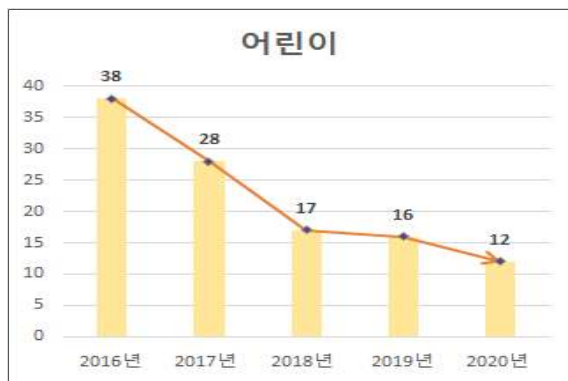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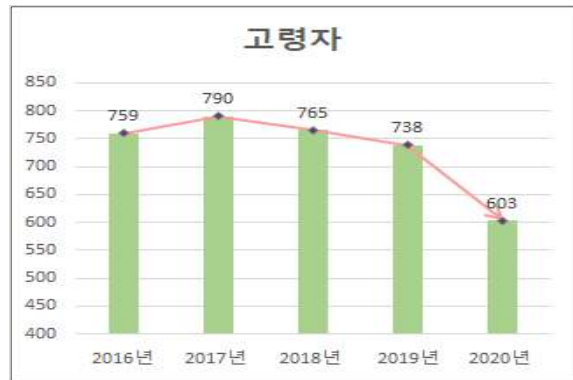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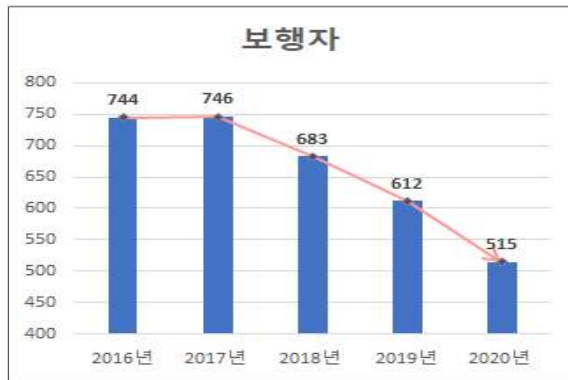
* ('15) 4,621(△3.0%) → ('16) 4,292(△7.1%) → ('17) 4,185(△2.5%) → ('18) 3,781(△9.7%) → ('19) 3,349(△11.4%)



< 최근 6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('14~'19) >

□ 항목별로 살펴보면,

-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(612명) 대비 15.8% 감소,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.3%를 차지하였다.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.5%(157명)로 나타났다.
-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(738명) 대비 18.3% 감소하였으며,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(46.9%)이 가장 많았고, 자동차 승차 중(24.0%), 이륜차 승차 중(21.6%) 순으로 발생하였다.
-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(16명) 대비 2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(152명) 대비 2.0% 감소하였으나,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3.1% 증가하여,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더욱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 1~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('16~'20) >

○ 버스·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**267명**으로 전년 동기(305명) 대비 **12.5%** 감소하였다.

-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, 택시(△32.9%, 85→57명), 화물차(△15.5%, 84→71명) 순으로 감소하였으며, 버스(10.0%, 40→44명) 및 렌터카(33.3%, 36→48명)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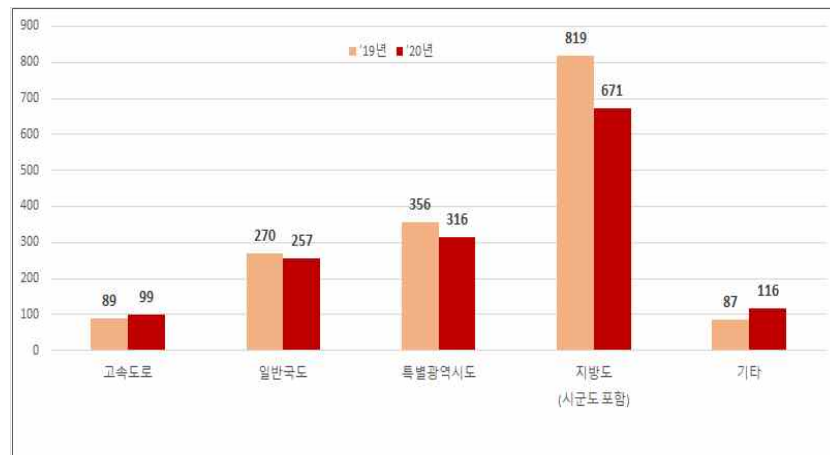
* 전체 화물차(비사업용 포함) 사망사고는 328명으로 전년 동기(382명) 대비 14.1% 감소

○ 한편,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,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**265명**으로 전년 동기(233명) 대비 **13.7%** 증가하였으며, 같은 기간,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**2.7%** 증가하였다.

*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(전년 동월 대비) : 음식서비스 77.5% ↑ <통계청>

□ 도로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

- 특광역시도·지방도·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87명으로 전년 동기(1,175명) 대비 16.0% 감소하였으며,
- 일반국도는 4.8% 감소(270명→257명)하였으나, 고속도로는 11.2% 증가(89명→99명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 1~6월 기준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('19~'20) >

□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

- 전년 동기(1~6월) 대비 강원(△45.2%), 인천(△41.2%), 충북(△34.6%), 제주(△17.9%), 대구(△13.2%)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,
- 광주(50.0%), 대전(9.1%), 울산(7.7%), 경남(4.7%)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,
 - 관련 지자체,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의 추가적인 교통안전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구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세종
20년	1,459	108	57	46	40	30	36	28	309	46	68	126	100	131	165	133	32	4
'19년	1,621	117	58	53	68	20	33	26	311	84	104	132	111	148	182	127	39	8
대비	-162	-9	-1	-7	-28	10	3	2	-2	-38	-36	-6	-11	-17	-17	6	-7	-4
(%)	-10.0	-7.7	-1.7	-13.2	-41.2	50.0	9.1	7.7	-0.6	-45.2	-34.6	-4.5	-9.9	-11.5	-9.3	4.7	-17.9	-50.0

< 전년 동기(1~6월) 대비 지역별 사망자 수 증감 현황 >

- 정부는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’의 일환으로 지난 ‘18.1월 수립 한 「교통안전 종합대책」을 바탕으로,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,
 - 올해에도, 관계부처 합동 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(‘20.1)」, 「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(‘20.4)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종합적·맞춤형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.
- 정부는 지난 2년간(‘18~’19)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폭으로 감소해온 교통 사망사고를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,
 -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,
 - 지난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, 상습법규 위반지역·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위법사항 단속,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 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,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 - 또한,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(난폭운전 등) 중점 단속,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, 졸음운전·터널안전·어린이·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·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·참여와 일선 지자체·경찰관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, 교통 법규 준수 및 ‘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’ 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에 따라, 각 지역에서도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여,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주곤 경정(02-3150-2152),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
이정식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